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6. 3. 20.(금) 07:00 ~ 2026. 3. 22.(일) 22:00
- 상담건수: 1,076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우리말 겨루기」

-방송일시 : 1TV (월) (19:40-20:30)

본인은 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,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. 진행자가 진행을 잘하고, 제작진이 만드는 방송 내용도 너무 좋다. 해당 방송을 보며 공부하려고 볼펜도 샀다. 감사하다.

○ 편성 제언(11명)

-프로그램명 : 「BTS 컴백 라이브」

-방송일시 : 2026. 3. 21.(토)

방탄소년단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해서 전국이 난리이다. 그런데 왜 공영방송 KBS에서 해당 공연을 생방송으로 편성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. 넷플릭스는 가입한 사람만 시청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이 공연을 볼 수가 없다. KBS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4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076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584	54	-	-	438	1,076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511	373	12	-	2	178	1,076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185	891	-	1,076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880	4	75	117	1,076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BTS 컴백 라이브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편성 제언 ○ 「2009 전설의 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속 방송 요청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 12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 호평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우리말 겨루기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호평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연자 제언 ○ 「남북의 창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제언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영화가 좋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제언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음악실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송 호평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젓갈 문의’ 연락처 문의 44건 ○ 「동네 한 바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산나물소갈비찜’ 연락처 문의 43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여주 쌀밥’ 연락처 문의 38건 ○ 「불후의 명곡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방청’ 문의 15건 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흑염소’ 연락처 문의 14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3건 ○ 「수신기술」 문의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47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6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2건 ○ 「주차」 문의 3건 외 7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117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의견	세부내용
[시사·교양]	
방송 호평	<p>○ 「우리말 겨루기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(월) (19:40-20:30) - 본인은 수신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, 해당 프로그램 덕분에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. 진행자가 진행을 잘하고, 제작진이 만드는 방송 내용도 너무 좋다. 해당 방송을 보며 공부하려고 볼펜도 샀다. 감사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출연자 제언	<p>○ 「6시 내고향」 ‘식재료 원정대’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3. 19.(목) 1TV (18:00-19:00) - 많은 국민이 보는 프로그램인데, 요리사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요리했다. 그것까진 이해할 수 있는데, 심지어 요리하던 국자로 맛을 본 후 다시 그 국자로 요리를 했다. 요즘 가정주부도 그런 식으로 요리하지 않는다. 이 장면을 시청하며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방송 제언	<p>○ 「남북의 창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3. 21.(토) 1TV (07:50-08:30) - 북한을 광고하는 방송처럼 느껴진다. 공영방송에서 북한의 좋은 점을 보여주는 게 거슬린다. 여기가 한국인지 북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. 주말 아침마다 보기 불편하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[연예·오락]	
방송 제언	<p>○ 「영화가 좋다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3. 21.(토) 2TV (10:10-11:20) - 신작 소개를 하는데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어서 재미가 떨어졌다. 이날 ‘살목지’, ‘터블런스: 15,000피트’를 소개했는데 “강가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다”, “어느 공간에 갔다가 헤매다 죽었다” 등 내용이 비슷하니 내레이션도 비슷해 재미없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라디오]	
방송 호평	<p>○ 「KBS 음악실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. 3. 19.(목) 1FM (11:00-12:00) - 이날 선곡이 너무 좋아서 잘 청취했다. 진행자도 진행을 차분하게 잘한다. 늘 듣는 프로그램이며, 좋은 곡은 다시 찾아서 듣는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